

찾아가는 복지? ...과중한 업무에 업무도 못낸다

광주·전남 '통합사례관리사'가 말하는 복지 현실

인력 턱없이 부족해 가정방문 생각도 못해 대상자 발굴 불가능... 복지사각 해소 안돼

최근 '광주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 광주·전남 각 지자체가 '찾아가는 복지'를 적극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보호역할을 하는 '통합사례관리사'들의 업무가 급증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광주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 광주·전남 각 지자체가 '찾아가는 복지'를 적극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보호역할을 하는 '통합사례관리사'들의 업무가 급증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전남 통합사례관리사들은 1명당 평균 40세대를 관리하는 등 극심한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새롭게 찾아내기는 커녕 사례관리대상마저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 통합사례관리사들은 1명당 평균 40세대를 관리하는 등 극심한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새롭게 찾아내기는 커녕 사례관리대상마저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복지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소외 계층의 실상을 알 수 있는 방문

확인 이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일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사들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가정방문'은 업무도 내지 못하고 있다.

다"고 밝혔다. 대상자와 주변 지인들의 신청 없이 는 사실상 대상자 발굴이 불가능하다 는 것이다. 집세나 공과금이 장거 체 납했다면 구청에 신고돼 생활 실태가 노출되지만 사정이 어려운데도 체납 을 하지 않았을 뿐 구청에서 인지조 차 할 수 없다는 얘기다.

대상자 발굴을 위한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통합사례관리사들의 설명이다. 통합사례관리사 수는 광주 21명·전남 64명 등 모두 85명이다. 이들이 지난해 사례관리를 맡은 건수 는 모두 3197건이다. 통합사례관리사 한 명당 37.6세대를 관리한 셈이다.

고려해야한다는 단서 조항을 감안하더라도 광주·전남 통합사례 담당자 업무는 과중한 편이다.

광산구 희망복지지원팀 한 통합사 례관리사는 "한 명당 60세대 이상 관 리하고 있다. 사무실에서 민원상담하 기도 바쁘는데, 현장에 나가 대상자를 발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사들은 정신질 환자나 알코올 중독자 등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로부터 위협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병원비를 내달라거나 빚보증을 서 달라고 조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사소한 문제를 들고 와 해결해 달라고 때를 써 난처할 때도 있다. 일부 통합사 례관리사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사례관 리 세대자 자살이나 자살시도도 인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들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하루종일 일손을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B씨 는 "알코올중독자 남성이 있다는 소 식을 듣고 집에 찾아갔는데 남성으로 부터 위협을 당한 이후부터는 사례관 리 대상자 집에 갈땐 무조건 2인1조 로 움직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어려운 형편에도 복지 사각 지대에 놓여 지원받지 못하는 이들과 부정수급자들을 동시에 지켜보며 복 지제도에 회의가 든다는 말도 했다.

복구 한 통합사례관리사는 "부모 가 35년 전 이혼한 뒤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아버지가 수급자였는데, 지 난 35년간 만난 적도 없는 아들의 재 산이 일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했다"며 "아버지는 누가봐도 수 급자였지만 도움을 줄 수 없어 안타 까웠다"고 말했다.

A통합사례관리사는 "자신이 관리 해온 세대였는데, 자살했다는 소식을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통합사례관리사 정신질환자·알코올중독자 등 취약계층 세대를 발굴한 뒤 상담을 통해 주거·교육·의료·취업 등 민·관기관에 연계·관리해주는 복지 담당자다.

현황
광주 21명·전남 64명 관리 대상 3197건
1인 평균 37세대...복지부 기준은 20세대

관리사들의 하소연
A씨 "관리세대 자살소식에 트라우마 시달려"
B씨 "알코올중독자 등 위협에 가정방문 불안"



벚꽃 명소 '불꺼진 밤'

상록회관 시민들 구경 중
밤 10시께 가로등 꺼

공무원연금공단

"절전 방침에 소동한 것"

광주지역 벚꽃 명소로 자리 잡은 농성동 상록회관 진입로와 인근 주차장의 가로등이 밤 10시부터 꺼지면서 야간 꽃놀이를 즐기러 온 상춘객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지난 30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 진입로와 인근 주차장은 평년에 비해 일찍 개화한 벚꽃을 보기 위한 시민 300여명이 몰려 발 디딜 틈 없었다. 수은 등 아래 연인,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던 시민들은 밤 10시 벚꽃을 비춰주던 가로등이 꺼지면서 어둠 속에 파묻혔다. 사방이 캄캄해져 벚꽃은커녕 길을 찾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도로 불룩에 걸려 넘어지거나, 가족을 찾지 못해 울음을 터트린 아이도 보였다.

시민 정모(여·20)씨는 "예고도 없이 불을 끄는 법이 어긋는

나"며 황당해 했다. 또 다른 시민 양모(29)씨는 "전기를 아끼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는 거리에 가로등은 켜져 있는데 이렇게 사람 많은 이곳의 가로등을 꺼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상록회관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인 공무원연금공단 광주지부측은 정부의 에너지절약 방침에 따른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여기에, 주류 판매 등 근절되지 않는 '불량 놀이문화'에 대한 피해는 물론 도로를 점령한 잡상인과 주차문제 등으로 인해 '소동'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시민에게 시설을 개방하고 있지만, 공단이 벚꽃 축제 자체를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봄마다 평균 300만원씩 쓰레기 처리 비용을 들여야 하는 데다, 취객 문제나 화장실과 주차장 시설의 관리 등에 신경을 써야 하는 우리의 고충을 시민들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지난 31일 광주시 서구 D교회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원들이 방호복을 입고 수색하고 있다.

광주지검, 사전 선거운동 고발장 접수 수사

광주지검 후보 측이 특보단을 구성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3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A 후보 측 불법 선거운동 조직 구성 및 사전 선거운동 협의'를 담은 P씨의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고발장에는 A 후보측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 특보지 수락을 요청했고 특보로 임명된 상당수가 해당 후보를 홍보하는 명함을 제작, 배포하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보 자신의 명함에 예

비후보자나 후보자의 이름을 함께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했다는 게 고발인 주장이다.

고발인 측은 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 사무장·사무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이름이 게재된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통상적인 명함 교부로 볼 수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데 따라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 피고발인을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있는 지를 파악하기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교회 건물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에 군·경찰 대거 출동 소동



○여성이가족부 청사와 광주 한 교회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 때문에 경찰과 군 병력이 대거 출동, 수색을 하는 등 한바탕 소동.

○3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0분께 112 상황실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게시판에서 '서울 여성가족부 건물과 광주 D 교회에 폭발물을 설

치했다'는 익명의 글을 봤다'는 박모(22)씨의 문자 메시지가 접수됐다 는 것.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뒤 건물 출입을 즉각 통제하고 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 등 2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2시간 동안 수색을 진행했지만 폭발물을 찾지 못했고 동종 전력이 있는 박씨로부터 허위 신고 사실을 자백받아 구속영장을 신청.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hello 모바일

완전할인 요금제 출시 기념

가입 축하 이벤트

★ 매일 5분만 통화하면 기본료가 완전 무료!

기본요금 완전무료

11,000원 (매일 5분만 통화)	150분 이상 통화 시 기본료 비교	11,000원 (매일 5분만 통화)	150분 미만 통화 시 기본료 비교
0원 (기본요금)	100% 할인	0원 (기본요금)	50% 할인
hello 모바일		hello 모바일	5,000원 (기본요금)

다양한 최신 피쳐폰 단말기로 더욱 저렴하게!

큰 LCD 화면에 7인치 컬러 LED가 반영되는 슬림디자인	기본기에 충실한 편의 기능들과 시원한 대두면	쉽고 명쾌한 실용적인 UI
삼성 애니콜 노리2	LG 외인사베르	삼성 애니콜 미니멀플러

만 고객의 선택! 알뜰폰 1위 헬로모바일 www.cjhello.com

NAVER **광주 소리큐**

광고심의필 2012-10-18-1326

국내개발 | 국내생산

소리큐 보청기

NEW soriQ (음성증폭기) 제품 모델명 S20, S22, ST33

TV 시청할 때 강의를 들 때

핸드폰 통화할 때 대화 · 상담할 때

찾아오시는 길

전남대병원 맞은편 본죽2층

동구청, 구도청 앞방로, 남광주 종합, 전남대 병원, 화순, 소리큐보청기, 천변로

소리큐 보청기광주 호남총판 062) 227-1700